투데이 칼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정 복 규
논설위원

최근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 회의에서 주요국들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를 무시못할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도 깊은 우려와 함께 비판에 동참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지난 2월 27일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 회의에서 러시아의 부당한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로 국제사회가 계속 군축 및 비확산 체제에 대한 현실 세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이란 등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잠재적인 핵실험 준비, 시리아의 오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의무 준수 불이행, 이란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장과 중국의 불투명한 핵무기 증가 등 다른 도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젠킨스 차관은 이 같은 위협으로 전 세계가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부 국가들은 대량 살상무기로 인한 위협을 줄이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새로운 영역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핵무기 관련 생산을 금지하고 중단하는 노력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다자간 군축 조치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사용되는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비차별적이고 국제적이며 효과적이고 검증 가능한 다자간 조약에 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분열성 물질 생산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군축 조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리오 도커티 영국 외무부 유럽 담당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 행동 규범을 무시하려는 주요 핵 무장국 외에도 우리는 총체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다.

도커티 차관은 "우리는 북한과 이란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확산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이러한 시험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도커티 차관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유엔 군축회의를 포함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틀 안에서 이뤄진 다자간 군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핵무기 사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계속 개발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발효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래식 무기와 탄약의 효과적인 통제와 생화학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무장관도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감축 노력에 동참하며 이란이 핵 생산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도 촉구했다.

독일 정부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유엔에서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이에 대응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은 생명권과 평화에 대한 존중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 설

국립대 김영란법 무더기 적발

전북 도내 어느 국립대 교수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그러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성을 자처하는 대학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회적인 공분마저 사고 있다.

외부 강의로 돈벌이를 하고도 학교에 제때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대학 교수들이 내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대학이 작성한 '2022년도 자체 행정지도 및 감사 결과 보고 문건'을 보면, 교수 23명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된 외부 교육이나 홍보, 토론회, 강의 등을 통해 사례금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수의과대학 교수 3명은 2020년 5월부터 22년 3월까지 외부에서 11건의 강연과 자문 등을 맡아 총 548만 630원을 수령했지만 학교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환경생명자원대학 교수 3명도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2건의 발표회 등을 맡아 417만 원, 생활과학대학 교수 5명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8건의 평가와 자문 등을 실시해 313만 7000원의 사례금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사범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소속 교수 12명도 외부에서 23건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사례금을 받았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일수는 평균 41.7일이다. 특히 신고 기한이 100일을 넘긴 교수는 총 4명이다. 해당 대학은 이들 교수에 대해 통보 처분을 내렸다.

재심의를 진행한 이후에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파트값 하락폭 소폭 둔화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3주 연속 둔화됐다.

지난 2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24% 하락했다.

지난달 6일 기준 -0.31%를 기록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 폭이 3주째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전주 대비 0.14% 하락하며 지난주(-0.22%)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송파구도 지난주(-0.13%)보다 하락폭이 둔화됐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전주 대비 0.39% 하락했다. 인천은 -0.36%로 2주 연속 내림 폭이 같았고, 경기도는 -0.55%에서 -0.47%로 내림 폭이 둔화 됐다. 전세가격 하락 폭도 줄었다.

서울은 지난주 -0.81%에서 이번 주 -0.70%로, 인천은 -0.74%에서 -0.51%로, 경기도는 -0.90%에서 -0.75%로 각각 전주보다 내림 폭이 둔화됐다.

하락 폭이 큰 저가 매물이 소진되며 추가하락 계약이 점차 감소하는 등 하락 폭이 축소되고 있다.

지역별 입주 물량 영향 등에 따른 매물적체가 장기화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매수심리는 1주일 만에 다시 하락했다.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지난주(66.7)보다 하락한 66.3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4.0, 수도권은 69.5로 전주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 높은 주요단지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완만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매수·매도 희망가격 간의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진행되는 등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때

개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통학을 시작하면서 길거리에 어린이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동시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는 시기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2021년까지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만 8343건이 발생하여 75명이 사망하였다.

이 중 어린이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사망자는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573건 발생, 11명이 사망하였는데 여기서는 어린이가 보행 중 사고가 약 67%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아파트 주변 등 어린이가 나올 수 있는 곳에서는 서행하고 교통신호를 준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를 준수하여 어린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길 바라며, 특히 22년 7월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횡단여부 상관없이 일시정지)을 꼭 숙지하여 운전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에게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방어보행 3원칙(보다-서다-걷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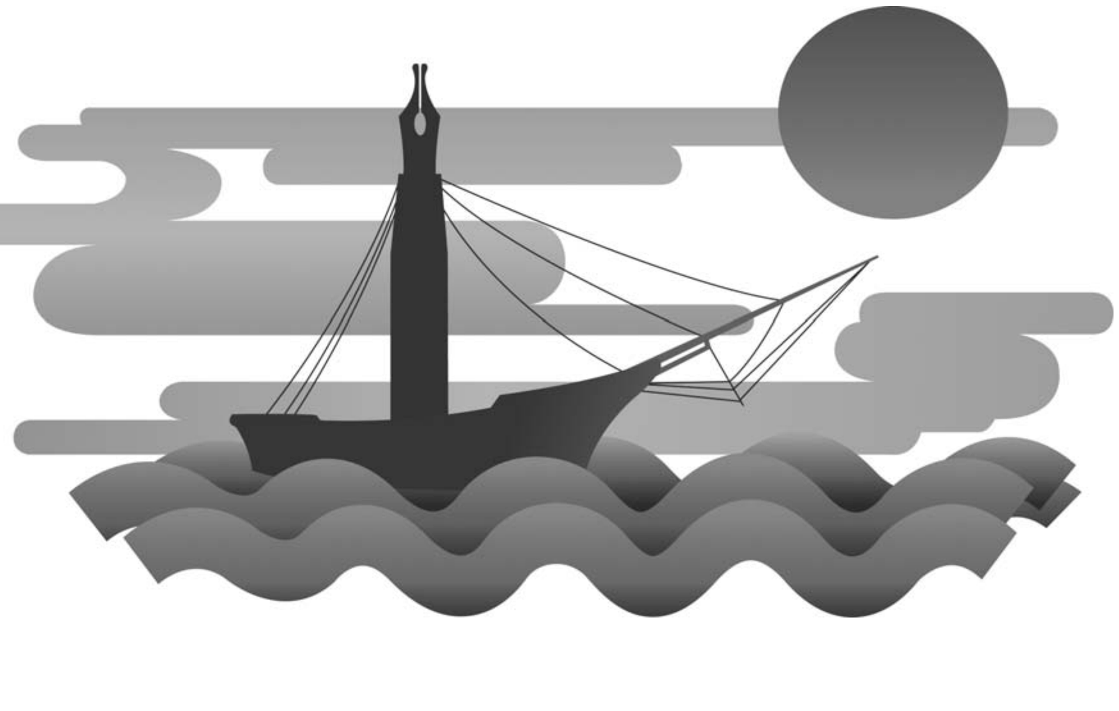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말이 있다. 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한다. 나는 괜찮겠지란 생각보단 나 먼저란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

허만옥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도착하면 연락해"라고 했지만…

2일(현지시간)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에서 열차 충돌과 관련한 시위에 참석한 한 여성이 "도착하면 연락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지난달 28일 템피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최소 57명으로 늘었고 시민들은 낡은 철도 시스템을 방치해 참사를 초래한 정부와 철도 회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